



女風 야구가 행복하다

‘넥타이 부대’가 점령했던 야구장에 ‘여풍(女風)이 거세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역대 세 번째 최소경기 400만 관중 돌파에 성공하며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1위 신바람 행진을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의 평균 관중수도 지난해 5천838명에서 8천422명으로 경중 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중들을 지켜보는 KIA 김주일 응원단장은 “베이징 올림픽과 WBC가 ‘여풍’의 기폭제가 됐고, 언론에 여성팬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호기심에 경기장을 찾는 여성들이 늘었다”며 “야구장의 열기와 응원 문화를 직접 접한 뒤에는 남성들 못지 않은 열성팬들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구장에 여풍

다닌다”고 달라진 관습 분위기를 전했다. 관중석은 물론 덕아웃에도 여성팬들의 파워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덕아웃에 떡과 바나나 등의 간식에서부터 화장품과 옷에 이르기까지 여성팬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은 연애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여성들이 야구장을 점령하면서 관중석에는 아기가자하고 재치 넘치는 응원도구와 피켓도 등장했다. 주로 스타 선수들을 겨냥한 재미 있는 피켓은 새로운 눈요기 거리. ‘○○오빠 홈런’은 기본이고 ‘○○기다려, △△가 안아줄게’ 같은 애교 만점 문구로 야구장 분위기가 화사해졌다.

조범현 감독은 “경기장을 찾는 여성 관중이 많이 늘어나는 등 달라진 야구 문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여성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위 행진과 여성팬들의 열풍 속에 KIA는 지난 13일 올 시즌 16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상승에 무등경기장 여성팬들 몰려

기발한 응원·피켓...새 트렌드 자리매김

어오르는 등 프로야구는 500만 관중 돌파를 향한 숨겨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올 시즌 프로야구의 인기돌풍 중심에는 여성팬이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축구의 묘미에 빠졌던 것처럼 프로야구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WBC 준우승의 거침없는 질주로 여성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몰아치면서 이제는 ‘야구장(野球場)’이 아니라 ‘여구장(女球場)’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KIA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외모와 적극적인 플레이도 여성을 사로잡았다.

김 단장은 “KIA의 상승장구가 이어지면서 선수들을 직접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여성팬들도 많아졌다”며 “특히 이용규·안치홍·김선빈 등 젊은 선수들이 여성팬들을 끌고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대북 제안

오늘 광복절 경축사 통해...친서민 정책도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 64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 제안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도 실용 및 서민 정책과 함께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청와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중도실용 및 친(親)서민 정책, 정치개혁, 대북정책 등에 관한 국정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정치·경제·군사·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폭넓은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 교

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의 ‘중도 실용’ 행보와 관련, “그것이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화합과 통합의 구심력을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치로 구분됐던 자유와 평등, 민주화와 산업화, 성장과 복지, 민족과 세계를 모두 상생의 가치로 보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 설립을 밝힐 예정이다. 서민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소

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을 ‘국민민생 5대 지표’를 선언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적결의지를 밝히는 한편 행정구역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과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비능률적인 정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난 타개와 미래 발전 방향을 위해 ‘녹색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집권 2년차인 올해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도 실용의 철학적 배경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tuim@kwangju.co.kr

김호타이어 부분 파업

방북 현정은 회장 체류 하루 더 연장

김호타이어 노사가 14일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등 교섭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김호타이어 노사는 14일 오전 제17차 교섭을 벌였지만 그동안 광범하게 맞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그동안 50% 감산 태업을 벌여오던 노조는 전날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이날 오전으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4시간 파업으로 생산량은 평상시 생산량의 40%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조는 ‘투쟁지침 8호’를 통해 사측이 제시한 명예퇴직 개별면담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 조합원이 9월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해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기로 했다.

한편 사측이 지난 10일 ‘명예퇴직

실시 공고’를 내고 이날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가 10여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706명으로 예고한 정리해고의 폭이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김호타이어 노조는 그동안 임금 7.48%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해 왔지만, 사측은 임금 동결 등 6개 항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의 17.9%인 70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노조에 협의요청 통보서를 보내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일정 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이에따라 현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그룹은 14일 “현 회장 일행이 평양 체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2박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현 회장은 앞서 일정을 하루씩 두 차례 연장했으며, 14일 오후 4시55분의 일정을 마치고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현 회장 일행으로부터 일정을 연장한다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이산 조건식 사장은 이날 오전 개성 방북을 위해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도착한 뒤 “(현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면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만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진도 ‘태극기 마을’ ▶ 3면

포인트 카드 활용하기 ▶ 4면

Books ▶ 8·9면

공포영화로 무더위 탈출 ▶ 10면

독자와 함께 ▶ 13면

우즈 단독 선두 ▶ 14면

50th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객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귀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http://www.kukje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박기 병용·병용후 취해 처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로 인해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기시 다량 증상의 완화: 허파, 폐경전, 수축성인 수축성증
- 아연의 보급**

광고심의필 : 1005-0430